

최저임금 인상, '생산성 개선' 효과 크다

제조업 생산성 높이거나 업종·규모별 영향 달라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생산성 개선효과는 업종이나 고용규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획일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업종별·고용규모별·연령별 특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영향률이 차이가 발생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팀은 2011~2016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업종·규모별 최저임금영향률을 토대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다.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폭 웃도는 정도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까지 잠재적 영향자로 보고 포함시킨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2011년 432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매년 5~8%씩 올라가는 동안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기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최저임금영향률은 30%를 내내 상회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5%를 넘지 않았다. 업종별로도 2011~2016년중 식료품과 의복

업 등은 20% 이상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수단업 등은 5%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더라도 산업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영향을 변화는 생산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한계기업 퇴출에 따른 산업구조 개선 등으로 이어져서다.

다만 업종별로 자동차, 식료품, 1차 금속, 석유제품 등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고용 규모별로는 소규모일수록 부정적, 대규모일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이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고용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상용직 증가에 따른 것이고 임시일용직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이 줄었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는 노동비용 증가나 잠재적 고용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한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계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분석 대상이 2011~2016년중 제조업에만 국한된 점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13일~14일 2일간 남원원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돼지고기 소비촉진 불 조성을 위한 지리산 고원흑돈 시식행사를 했다.

전북농협, 지리산 고원흑돈 소비촉진 행사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3일~14일 2일간 남원원에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앞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와 돼지고기 소비촉진 불 조성을 위한 지리산 고원흑돈 시식행사를 했다

행사장에는 시식코너를 마련, 지리산 해발 470m 이상 고랭지에서 사육한 지리산 고원흑돈 삼겹살, 양념불고기, 돈가스 등을 준비하여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돈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행사를 진행했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돼지고

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고 탄력 있는 피부 유지에 탁월하다"며, "소비자들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바로 알고 많은 소비로 이어져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관리 위원회는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돈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https://porkboard.han-don.com>) 또는 축산사업팀 홍창진 차장(240-3105), 홍보실 하양진실장(240-3071)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이웃돕기 성금·지역인재 장학금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4일 이웃돕기, 지역인재 장학금 등 전북도민을 위해 훈훈한 사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희장은 김제시청(시장 박준배), 장수군청(군수 장영수)을 방문하여 이웃돕기 성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지역 이웃들과 조금씩이나마 사랑을 나누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건설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 전복, 수산가공 분야 직원 교육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 센터장 이석홍)는 지난 12일 중회의실에서 직원들 역량 강화, 수산가공분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합동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수산업, 수산가공분야 교육으로 1차 '수산가공의 이해'에 따른 2차 교육으로,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전북지역본부 지역개발 설계·관리 담당자, 지사 어촌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수산 가공의 최신동

향, 고차가공'이란 주제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가공학과 한복경교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수산업 이해 1차, 2차 수산물 식품 법규 이해, 품질 위생관리, HACCP인증의 이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수산 분야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어촌 6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14일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북지역 수출 선도할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가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주)휴먼드림, (주)케이비전, (주)제논전장, (주)강동오케이, 지오이에스, 유)한복엘리베이터, 옹고집영농조합법인, 정우정공주식회사, (주)리퍼엔, (주)참고을, (주)진우에스앤씨, (주)대인 등 12개사 대표, 임원들이 참석,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더불어,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에는 18개사가 신청, 수출전문위원의 현장 평가, 전북수출지원협의회 심의를

통해 12개사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2018년에는 상반기 11개사, 하반기 12개사 등 총 23개사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47개사가 전북지역의 유망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지정하여 수출유망기업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들로 신청자격조건을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이번에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지정된 12개사가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연계지원사업을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전개, 전북지역의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0개 기관의 78개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조남룡 주무관(063-210-648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91개 기업, CCM인증 획득

2년간 관련법 어겨도

자율처리·제재 수준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91개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을 위반해도 제재 수준을 경감받는다.

올해 상반기 인증기업은 16곳, 하반기 인증기업은 75곳이었다. 하반기 인증기업 중에서 신규인증 기업은 16곳이었다.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소비자 중심 경영체계 등 여러 평가항목별 80%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인증기업들에게는 향후 2년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기간에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등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자율처리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소비자가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가 면제된다.

또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수준을 경감받는다.

공정위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